

말씀 노트 |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막 9:7)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1. 마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사건(9:2-13)과 귀신들린 어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쳐 주지 못하는 사건(9:14-29)을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사건은 장소적인 차이를 두고 동일한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들이 이 두 사건을 이해하는데 제자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 마가복음 9 장 1 절은 8 장 27-38 절의 말씀과 9 장 2-13 절의 말씀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막 9:1)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실현 되어집니다.

3. 9 장 2-3 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어진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 9:2)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3)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4. 마가는 예수님께서 변형되어지는 모습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능동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변형되어진 수동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동태를 **divine passive (신적 수동태)**로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변화 되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5. 본문 3 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에 비유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마치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빛나고 희게 되어졌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얼굴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 17:2)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변형되어진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벧전 3:22)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6. 본문 9 절에 등장하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막 9:4)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7.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가운데에서 베드로의 대답이 본문 5-6 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막 9:5)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6)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8. 그런데 베드로의 답변에는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랍비(ῥαββί)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자신이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8:29)라는 고백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는 위대한 자신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8:31)의 예언과 참된 제자도의 삶(8:34)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경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막 9:6)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9. 마가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변형 되어지는 사건을 통하여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하늘의 음성입니다.

(막 9:7)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늘의 음성을 1 장 11 절에서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과 오늘 본문 9 장 7 절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고, 15 장 39 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백부장의 고백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0. 결과적으로 마가가 자신의 독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9 장 7 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막 8:31)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 장 1-4 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전 15: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2)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12. (막 9:8)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더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